

## ‘동원’ 되는 여성작가 : 한국전과 베트남전의 경우

박정애

### 국문초록

최정희, 모윤숙, 장덕조, 손소희, 전숙희, 조경희 등 다수의 여성작가들은 50-60년대 반공주의 남성 문단권력자들과 성별 분업적으로 반민중적 독재 정권의 ‘도우미’ 역할을 했거나와 한국전과 베트남전이라는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는 국가주의와 군사주의를 감성적으로 전파하는 이데올로기로 활동했다. 이들은 거의 일제시대에 등단하여 50-60년대에는 여성문단의 원로 대접을 받은 사람들로서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등단한 차세대와는 양적·질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무숙, 한말숙, 정연희, 강신재, 송원희, 박경리 등의 후배 세대는 전후(戰後) 남성중심체제의 공고화와 그로 인한 중산층 여성의 성역할 고정화의 영향으로 소위 기정주부 겸임 작가'로서 일찌감치 정치적 권력욕은 접어 버린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최정희 세대는 이미 일제(日帝)에 의해 동원되어 특혜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국가의 '호명'에 보다 쉽사리, 보다 적극적으로 정신(挺身)하는 면모를 보였다. 한국전과 베트남전 당시 국가의 호명에 응하는 그들의 자발성은 구체적인 생활의 필요와 아울러 평등에의 환각 체험에 의해 추동된 것이었으나, 그들의 실제 활동상은 여전히 가부장제 성별 분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여성문단의 세대교체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1960년대 후반, 베트남전 파병 논의를 전후해서는 최정희, 모윤숙의 목소리가 곧바로 한국 여성문단의 목소리였던 것은 아니었다. 자체

방위도 힘겨운 한국이라는 조그만 분단국가가 수만의 전투병을 파병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며 박경리는 “우리 젊은이들의 피는 거룩하기보다 눈물겹다”고 표현했다.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포박된 수사인 ‘거룩하다’에서 근원적 차원의 인간애를 제시하는 ‘눈물겹다’의 거리아말로 최정희 세대와 박경리 세대의 거리였다.

- 핵심어 : 50-60년대 여성작가, 한국전, 베트남전, 국가주의, 군사주의, 동원, 종군작가, 성별 분업, 최정희, 박경리

## 1. 머리말

먼저 밝히고 싶은 것은, 이 글의 목적이 ‘단죄(斷罪)’가 아니라 ‘반성(反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다수의 50-60년대 여성작가들이 반민중적 독재 정권의 ‘도우미’ 역할을 했고 한국전과 베트남전에서는 당대 반공주의 남성작가 중심 문단권력의 주변에서 국가주의와 군사주의를 보다 감성적으로 전파하는 이데올로그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지성을 몰각한 행위이었으며 나아가 역사와 민중에 대하여 죄업을 쌓은 것이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데에 치송하지 않겠다. 그보다는 그 여성작가들의 실존적 환경과 ‘경험’, 그리고 그 ‘환경’과 ‘경험’의 지역적/세계적, 개인적/정치적 지도를 그리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나는 전쟁을 겪지 않았고 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의 국물을 점적(點滴)일지언정 받아먹은, 30대 전문직 중산층 여성으로서, 일제 강점기와 태평양전쟁을 체험했고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의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시대의 여성작가들과는 매우 다른 존재 조건에 처해 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비판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그들 존재의 제반 조건에 대하여 철저히 고민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약소국의 이등국민으로서 문학이라는 제도화된 자기표현의 장에서 활동하는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나’와 ‘그들’의 경계는 의외로 그다지 뚜

렸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비판을 넘어 그들의 경험 지도에 우리 자신을 놓아보고 우리 안의 국가주의와 군사주의를 성찰하는 역사사지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본론 2장에서 이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하였고, 3장에서는 여성작가가 '동원' 되는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겠다. 4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면서 성찰과 극복의 문제를 제기한다.

## 2. 50-60년대 여성작가의 실존적 환경과 경험의 지도

그들은 우선 전쟁의 시대를 거둬 살아남은 사람이다. 전시(戰時)라는 시공간적 배경은 평시(平時)보다 훨씬 더 인간의 생존본능을 가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은 여자였다. 전시에는 여자가, 남자가 비웠거나 방치했거나 부족한 공적 공간을 떠맡으면서 젠더평등을 향해일보 전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부장제적 국가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등국민의 굴레를 실질적으로 벗어나기란 여전히 힘들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당시 해군 중군작가단을 지원했던 손소희와 윤금숙은, 배에 여자를 태우면 재수가 없다는 인습적 금기에 부딪쳐 물러나야만 했다. 그들이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제도로서의 문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특권을 소지한 그룹이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그들 역시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 쟁투에 휘둘리는 약소국의 국민이었다는 점에도 유념하자.

이제 막연히 '그들' 이 아니라 '그들' 의 이름을 지목함으로써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 시대에 한국전쟁 관련 남측 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간여한 여성작가로는 최정희, 장덕조, 손소희, 모운숙이 있다. 면면에서 드러나듯, 일제 치하 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에 등단하여 50-60년대 여성 문단의 원로급을 형성한 작가들이다. 이는 최정희가 한국여류문학인회 2대 회장, 모운숙이 3대 회장, 손소희가 7대 회장이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공군에 종군한 최정희, 전속회, 육군에 종군한 장덕조, 손소희는 그야말로 '중

군작가'로 활동했고, 모운숙은 이승만 정부의 외교통으로서, 그리고 임영신이 세운 기독교적·반공주의적·민족주의적 여성단체인 대한여자청년단의 총본부단장으로서 국가주의에 복무했다. 임옥인, 한무숙, 강신재, 김말봉, 조경희 등은 신병(身病)이나 가족 수발 등의 개인적 사유로 우익의 편에 서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뿐 두드러진 활동은 하지 않았다.

재미있는 것은 파월 종군작가단으로 동원된 여성작가들의 면면도 위의 원로급들과 대개 겹친다는 사실이다. 일제 파시즘에 의한 동원에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의 동원에 이르기까지 유사하게 펼쳐지는 이들의 이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중 최정희에 관해서라면 <최정희 소설에서 그러한 여성의 갈등「모성과 욕망 사이의 갈등-인용자」을 기존의 권위 있는 진술에 기대어 쉽게 해결해 버리는 안이함 때문에 '친일'이 권위 있는 진술이 되었을 때도 쉽게 친일 문학으로 기울 수 있었다는 최정희 문학의 일관성>을 지적하는<sup>2)</sup> 입장이 있다. 모운숙의 사례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권력 추종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3장에서 보다 상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익히 아는 50-60년대 여성작가로서 한말숙, 정연희, 손장순, 박경리, 송원희, 김후란, 김남조, 구혜영 등은 50년대에는 미등단이거나 새파란 신인이었고 60년대에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문단 소장파이자 중상류층 가정의 주부<sup>3)</sup>였다. 더러는 교원, 언론인 등의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대사회적 발언이나 문단권력에 전 세대 여성문인들보다는 관심을 덜 보인 세대였다. 이들 소장파의 활동은 앞서 언급한 원로 여성문인의 활동을 실무 차원에서 보좌하는 정도에 그쳤고, 그 원로 여성 문인들이 현역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전

1) 김활란, 이희호 등이 여기서 활동한 것으로 보아 이화여전 인맥이 주요하게 작용한 곳인 듯하다.

2) 이상경, 「일제 말기의 여성 동원과 '군국(軍國)의 어머니」, 한국여성연구소 편, 『페미니즘 연구 2호』, 동녘, 2002, p. 229.

3) 한국전쟁 때 남편을 잃은 박경리, 66년에 이혼한 정연희는 예외적이다.

면에 나서게 되었을 때에는 조직 활동 자체가 매우 시들해져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박화성의 회갑 기념문집 준비모임을 계기로 역량을 축적하여 구성된 ‘한국여류문학인회’의 경우, 제 1대 박화성, 2대 최정희, 3대 모운숙 회장까지가 주부백일장과 더불어 기관지 발행에 『한국여류문학전집』 발간, 여류문학상 시상 등 조직 활동을 가장 탄탄하게 수행한 시기이고, 후대로 내려갈수록 총 회원수만 늘어났을 뿐 주부백일장과 정기 가을 세미나 이외에는 뚜렷한 활동을 벌이지 못하는 조종한 조직이 되고 만 것이다. 더구나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여성문단의 실세(失勢)를 망라하고 있었던 것이, 최근에는 ‘한국여성문학인회(1992년에 개명(改名))’의 존재와 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는 젊은 여성작가가 드문 실정이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우선 최정희 세대와 박경리 세대는 여성 지식인의 숫자와 사회참여 통로라는 측면에서 양적·질적으로 확연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었다. 전자의 세대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라는 열악한 조건하에서 일단 수적으로 매우 희귀한 존재였다. 사회 참여의 통로도 더욱 제한적이어서 자기표현의 욕구를 발산할 길이 대개는 막혀 있다 보니 그나마 가장 고전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문학 장르로 수렴되기 쉬웠다. 그래서 그들의 면모는 직업인으로서의 작가라기보다 유교문화권에서 일종의 올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라 할 ‘문사(文士)’ 개념에 가까웠다.

문학과 문학인의 위력도 지금에 비하여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는데, 지배 권력의 입장에서는 그 위력이 그만큼의 위협이면서 그만큼의 이용가치였을 터였다. 여성문인들의 입장에서도 국가주의의 ‘호명’과 ‘동원’은 강압이면서 동시에 유혹이었다. <평등에 대한 환상과 주체 회복에 대한 희망>이 그 ‘유혹’의 내용이었을 것이다. 일제의 대동아공영 논리를 선전하는 일은, 식민지 민중의, 그것도 여성의 비루한 운명에서 벗어나 황국의 ‘국민’

4)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선옥, 「평등에 대한 유혹 - 여성 지식인과 친일의 내적 논리」, 『실천문학』, 2002년 가을호를 참조할 것.

으로 거듭나는 것 같은 매혹적인 환각을 심어주는 체험이었을 수 있다. 또한 그 환각 체험은 현실적으로도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해 주었을 것이다. 거의 모든 물자가 부족하고 그 부족한 물자마저 군대 중심으로 배급되기 마련인 전시(戰時)에 넓은 의미에서 군대의 홍보담당이라 할 만한 이 작가들에게 배급 상의 우선권이 주어졌을 것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한국전쟁 중 종군작가단은 군 정훈감실 문관과 같이 봉급 외에 쌀 등을 지급받았다<sup>5)</sup>고 한다. 말하자면 그들의 자발성은 평등에의 환각 체험과 생활상의 구체적 필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던 셈이다.

특히 문제적인 인물은 최정희이다. 최정희는 원래 작가 지망생이라기보다는 배우 지망생으로서 연극운동을 하던 김유영에게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 당하고 불행한 결혼생활을 영위했던 과거가 있다. 노래와 연기에든 꽤나 소질이 있었던 이 작가는, 공군작가단 창공구락부 소속으로 대구에 머무를 때 문인극의 주연으로 큰 인기를 끌어 부산에서 앙코르 공연을 가졌고, 공군작가단 소속이면서 육군의 문인극에서도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당시 피난지 대구에서는 최정희, 장덕조와 조애실이 군복차림으로 전속회가 경영하는 다방 “향수”에 드나들곤 했는데, 이들의 “군복 댁시”가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최정희의 경우는, 정치인의 아내이던 장벽조, 김동리의 아내 손소희, 육군병원 부원상의 아내 전속희처럼 본인의 성향·이력과 아울러 남편이 남측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다. 최정희야말로 전쟁이라는 비극적 시공간을 무대로 자신이 지닌 배우로서의 재능을 일정하게 발휘하며 자기 삶을 연기(演技)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앞서 인용한 “기존의 권위 있는 진술에 기대어 쉽게 해결해 버리는 안이함”이란 이 ‘배우 기질’과 상통하는 바 있다. 곧 삼맥(三脈) 시절에 유부남에 대한 사랑의 슬픔을 인종하는 ‘여자다움’의 포즈를 취한 것과 전시에 남편을 기다리는 애련한 여주인공의 포즈를 취한 것은 생에 대한 동일한 태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5) 『민족의 증언 7』, p.108.

그런데 명색이 종군작가인 최정희, 장덕조, 손소희보다 이화여전 문과 선후배 사이인 모윤숙, 전숙희, 조경희가 전후(戰後) 공직에서 더욱 출세하는 까닭은, 역시 이들이 영어에 능숙하고 서구적 사교술을 지녔다는 공통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던 시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당시로서는 몇 사람 안 되는 미국 유학생들 이외에 여성으로서는 이화여전 출신밖에는 없었다.> 『1954년 4월 대한민국 초대(初代) 예술원 선거에서 “개표가 끝났을 때 끔찍하게도 문학 부문의 여류는 한 사람도 당선된 관문을 깨뜨리지 못했다”』는 증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남성 질서가 새로이 공고화되던 전후의 시대상황하에서 이들은 PEN이라는, 자신들의 특장(特長)을 발휘할 수 있고 문단의 남성권력자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새로운 권력의 장을 창출했다. 54년 초대 예술원 선거에서 여성으로는 가장 유력한 후보였으나 끝내 피선(被選)에 실패했던 모윤숙은 그 해에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의 창립을 주도하면서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57년에는 마침내 소원하던 예술원 회원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58년에는 유네스코총회 한국대표와 아시아 여성단체연합총회 한국대표로, 60년에는 펜클럽 한국위원장으로, 70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펜클럽대회 준비위원장, 71년 8대 국회 공화당 전국구 대표, 73년 한국현대시인협회

6) 전숙희, 「내가 만난 문인들」, 『문학, 그 영원한 기쁨』, 혜화당, 1995, pp. 126-7. 전숙희의 회고는 이렇게 이어진다. <그때 문단에서는 모윤숙 선생을 필두로 김수임씨와 노천명씨 등이 직장에서 활약했으며 조경희씨와 내가 막내동으로 자주 만나곤 했다. … (중략)… 그중에도 내 기억에 생생한 일은 한국 주제 유엔 감시단원의 단장이었던 메논 박사와의 만남이었다.

한마디로 그는 어떤 의미에서 한국독립의 은인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에 대한 그의 애정과 이해는 모윤숙이라는 한 여성의 힘이 크게 역할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메논 박사는 시를 좋아하는 멋쟁이 정치가였으며 모윤숙 선생과 자주 만나 시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적인 친밀감도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메논 박사는 선물을 사들고 모윤숙 씨를 자주 방문했으며 그럴 때면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남편 간에 자주 만나고 마음이 이끌린다는 일은 억지로 되지도 않으며 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이다.>

7) 손소희, 「부산했던 1954년의 봄풍경」, 『韓國文壇人間史』, 행림출판사, 1980, p. 196.

장, 74년 통일원 고문, 77년에는 펜클럽 한국본부 회장 등 수많은 공직을 역임하며 남한 반공주의 정권의 얼굴 마담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숙희와 조경희도 펜클럽 한국본부에서 30여 년에 걸쳐 주도적인 활동을 펼쳤는데, 전숙희는 1991년 한국인 최초로 국제 PEN 종신(終身) 부회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한말숙, 정연희, 송원희 등의 후배 세대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 영역이 그래도 좀 더 다양화하고 여성문인의 숫자도 십 단위에서 백 단위로 늘어난 시대를 살았기에 '문사' 보다는 직업인으로서의 문인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전후(戰後) 남성중심체제의 공고화와 그로 인한 중산층 여성의 성역할 고정화의 영향으로 소위 '가정주부 겸임 작가'로서 일찌감치 정치적 권력욕은 접어 버린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여성작가의 동원 양상과 그 의미를 해명하는 이 글에서 상기(上記) 후배 세대보다는 최정희, 모운숙을 필두로 한 선배 세대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도출된다.

### 3. 한국전과 베트남전에서 여성작가의 동원 양상

일제의 전시 총동원 체제하 관제 선전활동에 동원되고 수혜자가 되었던 경험을 가진 모운숙, 최정희 등이 여성 문단의 원로이자 영향력 있는 선배로 활동하던 시대이니만큼 당시의 주류 여성 문인들은 국가에 의해 동원되는 일에 별다른 거부감과 저항감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국가의 입장에서도 이 '여류명사' 들은 전시국가 혹은 준전시국가의 후방에서 각종 관제 행사의 이채(異彩)를 돋우는 '자원'으로서 특별한 사용가치를 지닌 존재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6·25가 나던 그해의 5월이었던가, 서울시의 부시장(副市長)으로 있던 모씨(某氏)로부터 글쓰는 여류들이 무더기로 초청을 받았다. 당시 신출내기였던 나



에게도 거기 끼이도록 초대가 왔다.

그날 장덕조선생은 옅은 보라빛 겹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부군 이 국회의원 선거전에서 패배해 부채를 지고 있다고 듣고 있었고, 집을 날려 버려서 새로 자신들의 땅에 집을 짓고 있다고도 듣고 있었다. 그래서 남방(南方) 여자같이 보라빛으로 얼굴도 그을어 있었다.

「모두들 생활하시기에 어려우실 줄 압니다. 특히 작가와 주부를 겸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충은 더욱 크신 줄 압니다. 그 중에서도 그 중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 들려주시면 힘 자라는 데까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오시게 했습니다.」

부시장 모씨의 그날 모이게끔 한 이러한 취지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선배작가들의 요구사항은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수도물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따위, 일반적인 주문뿐이었다. 이때 장덕조선생은 웃음섞인 목소리로

「쌀이 그 중 아쉽지요, 무엇보다 아쉬운 건 쌀이에요.」

까맣게 탄 얼굴에 그녀는 새하얀 이빨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선배작가들은 한결같이 티격태격, 장선생의 발언에 불만을 표시하는 표정들이었다.

「우리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래.」

장선생이 다시 이렇게 답변하자

「그런 건 개인 사정이지 않아?」

노천명선생의 반박이었다. 장선생은 그만 자리를 떴던 것도 같은데, 그때 나는 속으로 은근히 장선생 편이었다. 그러한 고충을 듣기 위해 초대된 자리였던 만큼 본인의 솔직한 생활의 변을 삼자가 탓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서였다. 아기자기한 미모(美貌)의 주인공이었으며 그녀의 발랄한 재기(才氣)와 가정을 위한 희생적인 봉사에도 이겨낼 수 없었던 그 당시의 각박한 현실을 장선생은 사실대로 토로했을 뿐이었다고 그 뒤에도 나는 그날에 있었던 그 장면을 회상하며 보릿고개를 위해 쌓아둔 우리집의 쌀 열 가마를 마음 든든히 퍼다보곤 했던 것이다.<sup>8)</sup>

8) 손소희, 『한국문단인간사』, 행림출판, 1980, p. 264.

아이가 많은 까닭에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쌀이라는 장덕조의 솔직한 발언은, 노천명을 비롯한 다른 '여류들'의 불만을 산다. 전깃불, 수도물 같은 것은 사변 직전의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문화적인 의미를 가진 의제이지만, 쌀은 생존과 직결된 일차적인 물질이기에 예술가에게는 수치스런 의제라는 식의 의미맥락에서 나온 불만일 것이다. 그러나 손소희는 마음속으로 장덕조의 편을 들었는데, 그것은 손소희 자신이 살림하는 주부의 처지에서 쌀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수필에서 유추할 수 있는 당대의 '여류'는, "발랄한 재기(才氣)와 가정을 위한 희생적인 봉사", 두 가지를 필요조건으로 갖추고 그 위에 "아기자기한 미모"까지 덤으로 갖추면 더욱 금상첨화인 특별한 여성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한국전쟁 당시 종군한 여성 작가의 성 역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시(戰時) 문화인의 의무는 예술작품을 통해 국민대중의 애국심과 전의를 고취시키는 일이었다. 즉 무력전에 있어서의 승리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승리에 대한 역사적·철학적 당위성을 예술로써 구현해 주어야 했다. 대다수의 문인들 또한 아래 인용문에서 느껴지는 매카시즘적 강박증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오늘에 있어서 만(萬)에 일(一)이라도 민족을 암흑과 살육에서 구출하는 십자군적인 이 성업에 대하여 방관적이지요 대안지화시(對岸之火視)하는 반민족적 행위가 있다면 이는 범으로써 뿐만 아니라 민족적 도의로써 준열한 벌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작가의 '동원'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삼군(三軍) 종군작가단의 인적 구성과 그 활동사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공군 종군작가단은 마해송 단장을 비롯하여 부단장 조지훈과 김동리, 사무국장 최인욱, 그 외 이상로, 유주현, 곽하신, 방기환, 박두진, 최정희, 박목월, 이한

9) 이현구, 「인류애와 동족애」, 『전시문학독본』, p. 138. 신영덕, 『한국전쟁과 종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p. 20에서 재인용.

직, 박훈산, 전숙희, 김윤성, 황순원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기지 종군 이외에 각종 보도 선전 활동을 하였고, 항공기 헌납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공군 정훈감실 예산으로 공군문고 제 1집인 시집 『창궁(蒼穹)』, 공군문고 제 2집인 소설집 『훈장』을 발행하였다. 최상덕(소설, 단장), 김팔봉(평론, 부단장), 구상(시, 부단장), 박영준(소설, 사무국장), 정비석(소설), 최태웅(소설), 이상범(미술), 유치환(시), 윤석중(아동문학), 장만영(시), 김진수(희곡), 김영수(소설), 김용환(만화), 양명문(시), 장덕조(소설), 박귀송(시), 김동진(음악), 하대웅(음악), 김기우(음악), 손소희(소설), 김이석(소설), 이호우(시조), 이덕진(시), 이순재(미술), 황준성(출판) 등의 단원으로 구성된 육군 종군작가단은 타 종군작가단에 비하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들의 활동내용별 통계를 보면, 일선 종군 총 회수 220회, 종군 연일수 924회, 종군보고강연 8회, 문학과 음악의 밤 14회, 기관지 『전선문학』 7호 발행, 문인극 공연 대구에서 2회, 부산 1회, 서울 3회, 지방순회 강연 2회, 시극 강연(정전 반대 강연회) 1회, 육군의 밤 방송 6회, 벽시운동 및 시화전 2회, 부대가 및 군가 작곡 작사 수십 편 등이 있다. 해군 종군작가단<sup>10)</sup>은 처음에는 박계주, 안수길, 이선구, 박연희, 공중인, 이봉래, 김규동, 손소희, 윤금숙 등으로 조직되었다가 여자는 군함을 타지 못한다고 하여 손소희, 윤금숙을 이종환, 허윤석, 박용구, 박화목으로 교체하였다고 한다.<sup>11)</sup>

종군작가단 활동에서도 젠더에 의한 역할 구분은 상당히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박계주가 글 쓸 자료를 얻기 위하여 해병대에 종군하고 정비석이 종군 보고 강연을 할 때, 장덕조나 전숙희는 피난지에서 가족을 수발하는 주부역할을 감당하는 한편으로 “문학과 음악의 밤”에서 문예물을 낭독하거나 종군작가단의 남성작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감성 노동을

10) 윤백남, 염상섭, 이무영 등은 당시 현역 장교로서 해군에 복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군작가단이라고는 볼 수 없다.

11) 이상 종군작가단의 인적 구성과 활동사항에 관한 논의는, 신영덕, 위의 책, pp. 35-45에서 발췌, 요약한 것임.

주로 담당하였다. 최정희는 종군 보고 강연회의 소설 낭독자로도 자주 나서고, 문인극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맡으면서 종군작가단에서 여성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수행했다.

모운숙은 미군정 시절부터 이승만의 편에서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이며 정부의 요직에 앉았다. 낙랑클럽은 모운숙이 주동이 되어 발족한 사교클럽으로서 외국 귀빈, 한국 정부 고위 관리 및 군 장성, 주한 외교사절 등을 접대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다. 1952년 12월에 발행된 데일리 팔로알토 타임즈지의 에니너 스폴딩 기사는 전쟁 중 낙랑클럽의 활동 무대였던 부산을 직접 방문하고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썼다고 한다.

“한국에서 가장 전설적인 여성은 한국 여성 2백명을 주한 외교관 등을 접대하기 위해 자유당의 접대부로 조직한 시인이자 정치인 모운숙이다. 모운숙 덕분에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 사령부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  
(중앙일보 1995년 1월 18일)<sup>12)</sup>

한편 국가주의적 동원에 대한 최정희의 적극성과 자발성은, 1967년 베트남 종군작가단의 단장 자격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여 사이공, 퀴논 등지의 장병을 위문하는 행동으로 일관되게 지속된다.

기실 정치권과 문화계를 막론하고 베트남 전쟁의 성격과 한국군 참전의 의미에 대하여 냉철한 비판적 인식을 가진 인사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독립운동가였고 야당의 정치지도자이기도 했던 박순천이 베트남 땅에 입을 맞추며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남의 나라에 군대를 보내고, 민족의 위력을 발휘한 이 감격, 이 비옥하고 광활한 땅이 우리의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동아일보》에 기고할 정도였다. 또한 일본의 아시아 침략전쟁 당시 천황의 적자가 되는 길은 전선에 나서는 길뿐이라고 젊은이들을 독려했던 시인 모운숙은 「또 다른 전선에서 국군을 본다」

12) 고은광순, 「허, '김활관상' 이라니, 『인물과사상』, 1998년 1월호.

라는 시를 써 베트남 파병은 <자유를 잉태하러> 가는 길이니 <죽음도 마다  
않고> <잘 싸워라>며 <가도가도 깊어지는 밀립 수렁>으로 젊은이들을 몰아  
넣는다.<sup>13)</sup>

수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가 있었다고는 해도 어쨌거나 남의 나라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고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었던 당대 문단 주류 인사들의 가  
족과는 큰 상관이 없었던지라 베트남 종군작가단의 성격은 당장 눈앞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사가 오락가락했던 한국전쟁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사  
정이 그렇다 보니 파월 종군작가단이란 것도 이름만 거창할 뿐 실상은 장  
병위문단 정도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인용문은, 못 말  
리는 건망증이 불러일으킨 실수답에 파월 종군작가단 체험을 섞어 넣은 손  
소희의 수필에서 발췌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종군의  
절박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별한 종류의 해외여행에 대하여 한국 문인  
들이 비치는 모종의 흥분감이다.

1967년 월남에 갔을 때는 그 건망증이 그 극(極)에 달했던 모양으로 나와 동  
행했던 언론인(言論人)이며 수필가인 박현서 여사는...(중략)...

밤을 비둘기 부대에서 보낸 우리의 아침식사는 특히 고별 초찬 격이기도 해서  
부대장인 박현식 장군을 비롯하여 한국군 장성 및 미국인 2명의 고문관 등, 모두  
들 기립한 채 우리들 일행이 식당에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날  
아침 식당 앞까지 왔던 나는 비로소 예의 캐논 사진기를 숙소에 그냥 놓아두  
고 온 생각이 났다.

돌아가서 캐논을 찾아들고 식당에 들어섰더니 장방향으로 들어선 똑같은 제복  
의 군인들하며 우리의 일행과 연예인 일행이 한결같이 엄숙한 시선으로 일제히  
나를 주시했다. 나는 목을 움츠려뜨린 거북이 꼴이 되어 박현식 장군의 어느 편  
엔가 가서 섰다. 그러자 일동은 비로소 자리에 착석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일행  
중 셋은 소위 VIP였고 그 중에서도 나는 연장자(年長者)라 해서 부대장인 박현

13) 김현아,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책갈피, 2002, pp. 106-7.

식장군의 좌우 어느 편인가 자리가 마련되는 대우랄까 한 것을 받았던가 보았다.

...(중략)...

「다시 뵙겠습니다. 카메라 찾았습니다. 여기 가져왔습니다.」

거수경례와 함께 눈이 맑고 볼이 팽팽한 군인은 웃으며 다듬어진 문장을 외우듯 또박또박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부대를 떠난지 약 한 시간 뒤였다. 너무나 빠른 기동성에도 감탄했거니와 박현식장군의 치밀하고 자상한 성품에 더욱 감사하며 그놈의 카메라를 나는 나의 핸드백 속 깊숙히 넣어 버렸다.

다음날이던가 다음다음날이던가, 우리는 사이공으로부터 크라크 비행장까지 날아왔다. 아홉 시간의 거리였다. 숙소가 정해지자 나는 일행인 박현서여사, 이무현여사(언론인)랑 함께 숙소 밖에 나와 산책을 하는 한편 카메라를 팡팡 눌러댔다. 카메라는 필름이 끝났다고 붉은 표시로 알려왔다.

「비둘기 부대에서 필름을 넣고는 쓰지 않았는데 아침 사이공 비행장에서라도 이랬어.」

나는 박현서여사를 바라다보며 고개를 기울여 보았다. 박현서여사는 언제나 그렇지만 천진스러운 표정인가 하면 조금은 웅골찬 눈초리로

「그건 당신 카메라가 아니야. 박장군이 새걸 구해서 보냈는데 당신한테는 비밀이됐어요.」

나부라는 듯한 어감으로 그녀는 이렇게 들려주었다. 그땐 그 카메라는 단 한번 내가 사용해 보았을 뿐 아이들 손에서 금방 잃어지고 없다. 그러나 박현식장군에 대한 나의 미안한 마음은 당시보다도 한층 더 깊이 남아 있다. 인사말씀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 것도 같다.<sup>14)</sup>

그러나 67년이면 이미 여성문단의 세대교체도 상당히 이루어져 있던 때라 최정희, 모윤숙, 손소희의 목소리가 곧 한국 여성문단의 목소리였던 것은 아니었다. 한국군 추가파병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당시 『조선일보』는 이호철, 신동문, 박경리 등 문인들로 하여금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14) 손소희, 『한국문단인간사』, 행림출판, 1980, pp. 240-4.

처리되는 과정을 방청하게 하고 그 방청기를 실었다. 박경리는, <파병안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파병안의 국회 통과가 뻔하기 때문에 “깨끗이 체념한 듯한 인상”이며, 의원들이 자리를 떠 텅 비고 그나마 남아있는 의원들도 줄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보다 더한 무관심”에 빠져 “의사봉 칠 시간”만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4차 파병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고 덤덤했다. 기왕에 발을 들여놓았으니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체념의 태도는 적극적 파병반대론이 제기되는 데 중대한 장애물이 되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분단국가, 자체 방위도 힘겨워 미군이 지켜주고 있는 나라가 이미 2만 2, 000명의 전투병력을 보낸 데 이어 추가로 2만여 명을 더 보내야 하는 현실을 보고 박경리는 “우리 젊은이들의 피는 거룩하기보다 눈물겹다”고 표현했다.>” 이 말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포박된 수사인 ‘거룩하다’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 차원의 인간애를 제시하는 ‘눈물겹다’의 편을 들어주는데, 이것부터가 전 세대와는 다른 차원에 놓인 창작정신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리고 <4차 파병 과정에서 반대론은 뜻밖에도 여성계 쪽에서 제기되었다. 그동안 한국군 파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박정희는 한국군 처우문제에 대해 미국측에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중략)…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받는 월급은 미군의 1/6, 필리핀이나 태국군의 1/4정도밖에 안 되고, 사병들은 심지어 자기 나라 땅에서 싸우는 남베트남 정부군보다도 못한 보수를 받는 형편이었다. 이에 한국부인회는 험프리가 방한중이던 1966년 2월 22일 미군 수준의 “처우개선이 완전 보장되지 않는 한 월남전선에 국군 증파는 절대로 반대한다”고 1, 500만 한국여성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한 신문의 여성면에 기고한 글에서 작가 강신재는 “무보수로 자기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군대는 남도 무보수로 사용해도 좋다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목숨을 걸고 어려운 전투를 수행하는 한국군의 보수가 다른 나라 군대의 보수에 비해 월등히 적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15) 한홍구,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화」, 『역사비평』, 2003, 봄, pp. 128-9.

고 주장했다.)<sup>16)</sup>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반전론이 제기되기 어려웠던 시대적 한계를 감안한다면, 경제주의적 관점에서나마 여성들이 대세(大勢)에 반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은 그 나름으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4. 성찰과 극복

최정희, 모윤숙, 장덕조, 손소희, 전숙희, 조경희 등 다수의 여성작가들은 50-60년대 반공주의 남성 문단권력자들과 성별 분업적으로 반민중적 독재 정권의 '도우미' 역할을 했거니와 한국전과 베트남전이라는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는 국가주의와 군사주의를 감성적으로 전파하는 이데올로기로 활동했다. 이들은 거의 일제시대에 등단하여 50-60년대에는 여성문단의 원로 대접을 받은 사람들로서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등단한 차세대와는 양적·질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무숙, 한말숙, 정연희, 강신재, 송원희, 박경리 등의 후배 세대는 전후(戰後) 남성중심체제의 공고화와 그로 인한 중산층 여성의 성역할 고정화의 영향으로 소위 '가정주부 겸임 작가'로서 일찌감치 정치적 권력욕은 접어 버린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최정희 세대는 이미 일제(日帝)에 의해 동원되어 특혜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국가의 '호명'에 보다 쉽사리, 보다 적극적으로 정신(挺身)하는 면모를 보였다. 한국전과 베트남전 당시 국가의 호명에 응하는 그들의 자발성은, 배급 상의 특권 등 구체적인 생활의 필요와 아울러 젠더 평등에의 환각 체험에 의해 추동된 것이었으나, 그들의 실제 활동상은 여전히 가부장제 성별 분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여성문단의 세대교체가 상당히 이루어진 60년대 후반, 베트남전 파병 논의를 전후해서는 파월 중군작가단장으로 활약한 최정희, '시'로써 파월 장병을 독려한 모윤숙의 목소리가 한국여성문단의 의견을 대표했던

16) 같은 곳.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체방위도 힘겨운 한국이라는 조그만 분단국가에 수만의 전투병을 파병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며 박경리는 “우리 젊은이들의 피는 거룩하기보다 눈물겹다”고 표현했다.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포박된 수사인 ‘거룩하다’에서 근원적 차원의 인간애를 제시하는 ‘눈물겹다’의 거리아말로 최정희 세대와 박경리 세대의 거리였다.

요컨대 국가주의적 ‘동원’의 논리에 앞장서 부응했던 여성작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전체 여성, 인류, 생명의 관점에서 자기의 위치를 성찰하고 그 위치에서 부단한 자기극복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는 것, 뒤집어서 말하자면 자기라는 개체의 실존적 환경에 매몰되어 각질화(角質化)하였다는 것이다. 그 굳어진 표피 안에서 그들은 국가의 호명과 주체를 종종 동일시했다.

자신의 존재 조건을 뛰어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에 자기의 존재 조건에 굴복하느냐 저항하느냐를 문제시하는 일은 개인과 조직을 막론하고 필수적이다.

자기의 존재 조건에 저항하는 일은, 일단 전체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한다. 성, 민족, 계급, 종교, 사회적 성향 등등을 객관화하여 자기 존재가 어디쯤 서 있다는 서늘한 자각이 필요하다. 그 자각을 기반으로 개체로서의 자기를 넘어 종족의 존재 조건, 더 나아가 생명의 존재 조건을 꿰뚫어 사유할 수 있어야 자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극복의 층위도 문제시된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민국가의 성립을 위해 개혁주의적 층위에서 협력할 것인가, 전지구적 자본주의 가부장제에 급진적 혁명적 층위에서 저항할 것인가.

나는 각기 다른 층위의 이런 ‘자기극복’이 따로 또 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만이 옳다는 결벽주의에 몰각되어 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을 깰 것이 아니라,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협상하는 정신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bstract

'Mobilized' Women Writers  
in the Case of Korean War and Vietnam War

Park, Jeong-Ae

The greater part of women writers from 1950's to 1960's like Choi Jeong-Hee, Moh Yoon-Sook, Jang Deok-Jo, Son So-Hee, Jeon Sook-Hee, Joh Gyeong-Hee and what not, gender-specifically performed as helpers of anti-democratic political power and as softer ideologues of nationalism and militarism. The women, who mostly debut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and were treated as deans in 50's-60's showed meaningful difference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compared with younger ones who made their debut around Korean War such as Han Moo-Sook, Kang Seen-Jae, Park Gyeong-Nee, Han Mal-Sook, Jeong Yeon-Hee.

On the one hand, military national power aims to organize women in personal space as the home front 'resources' and contemporary women writers occasionally take the initiative in pushing on with diverse activities of the civilian front. But in Korean War and Vietnam War although their voluntariness was motivated by virtual experience towards equality as well as concrete need of life, their actuality was so far within the limit of patriarchal gender-specific division of labor.

On the other hand, in the latter half of 60's, generation of

women world of letters was fairly changed. Therefore the voice of Choi Jeong-Hee and Moh Yoon-Sook could not overwhelmed the women literary circles. Younger generation novelist, Park Gyeong-Nee said that "the blood of our young men is not glorious but pathetic", giving a straight look to the reality of division nation Korean peninsula which was not strong to protect itself ought to send troops to other country. The distance from the rhetoric of 'glorious' which is bound to the ideology of nationalism to 'pathetic' which represents more basic and fundamental humanism can be paralleled with the distance from the generation of Choi Jeong-Hee to the one of Park Gyeong-Nee.

**key word** : Women writers from 1950's to 1960's, Korean War, Vietnam War, Nationalism, Militarism, Mobilization, war correspondent writer, gender-specific division of labor, Choi Jeong-Hee, Park Gyeong-Nee

▶ 위 논문은 8월 30일 투고 완료, 9월 30일 심사 완료, 11월 15일 게재 확정